

G2 AI Agent

미국

Part 1 Agentic AI 확산의 촉매제: Model Context Protocol(MCP)

Part 2 AI B2B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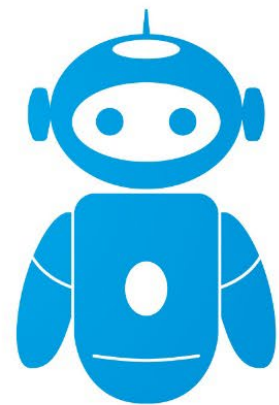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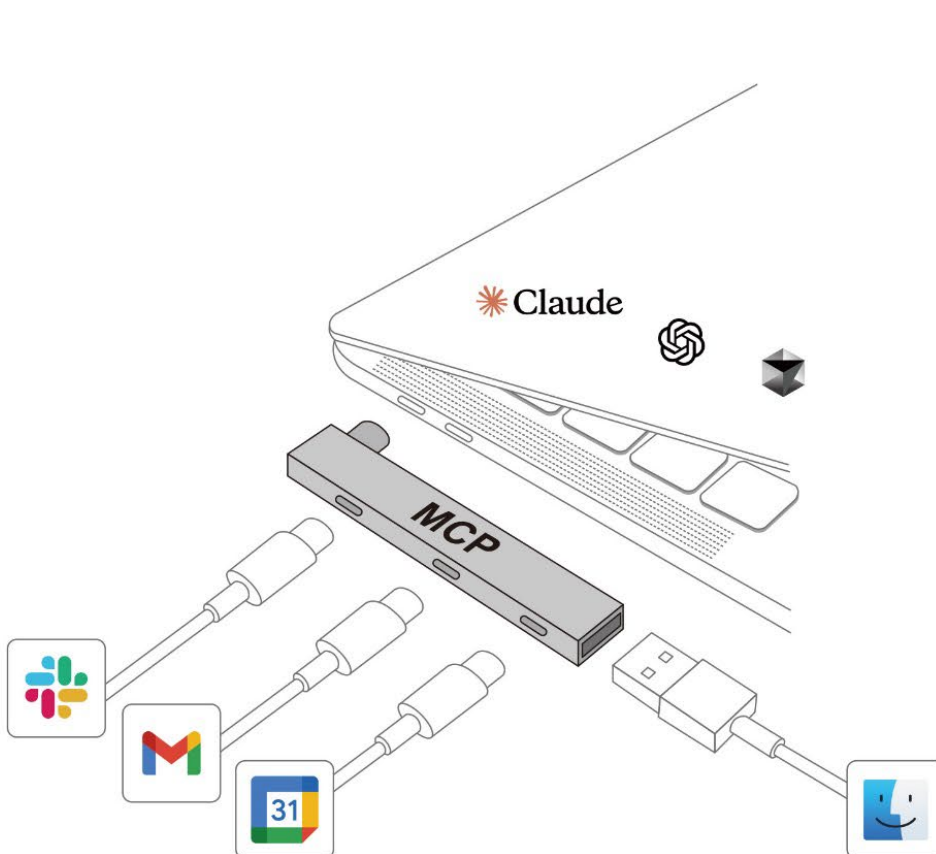
중국

Part 3 DeepSeek 이후의 중국 AI 기술 경쟁

Part 4 중국의 Agentic AI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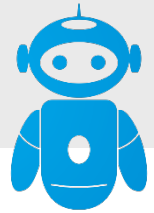
Part 5 중국의 Agentic AI 시대 투자전략

AI Agent



G2 AI Agent

AI Agent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Strategi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글로벌 투자전략
RA **박보경**
02-6454-4861
pbg811@meritz.co.kr

Contents

	리포트 작성 배경과 요약	4
	Intro Agentic AI 시대 진입과 확산 가속	5
미국	Part 1 Agentic AI 확산의 촉매제: Model Context Protocol(MCP)	8
	1. Agentic AI와 함께 관심이 커지는 MCP	8
	2. AI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의 개념	9
	3. MCP 등장 이전 AI 네트워크 환경	13
	4. MCP의 등장과 의의	15
	5. 어떤 중목을 봐야 하는가	18
	Part 2 AI B2B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분석	20
	1. 팔란티어 AIP: 기업 맞춤형 LLM 플랫폼	21
	2. AIP 효과 사례 분석	23
	3. 팔란티어 Warp Speed: 맞춤형 제조업 운영체제	26
	4. Warp Speed 효과 사례 분석	27
	5. 개선 사례는 AI 소프트웨어 도입 확산 촉매제	28
중국	Part 3 DeepSeek 이후의 중국 AI 기술 경쟁	29
	1. DeepSeek의 부상, 중국 AI 산업 개화의 발판 마련	29
	2. 기타 빅테크 추론모델 잇따라 발표	30
	Part 4 중국의 Agentic AI 시대	32
	1. 글로벌 AI Agent 진입 가속화	32
	2. 중국의 AI Agent 시장 경쟁 구조	35
	Part 5 중국의 Agentic AI 시대 투자전략	40
	1. 중국 빅테크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이유	40
	2. 텐센트 알리바바 vs. 바이두	42

리포트 작성 배경과 요약

올해 하반기 MCP 등장과
G2의 에이전트 기반 AI 생태계
확산 가속 전망

올해 하반기 우리가 주목하는 G2 주식시장에서의 변화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이다. 올해 상반기 AI 산업에서 화두 중 하나였던 ‘Model Context Protocol(MCP)’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등장으로, AI 네트워크 표준화가 진전하며 에이전트에 기반한 AI 생태계가 더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2024년 11월 미국의 Anthropic이 AI 모델과 모델의 도구 및 데이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MCP를 처음 제안했다. 프로토콜이란, 네트워크의 규칙을 의미하며, 프로토콜이 표준화된다는 것은 네트워크 규칙이 정립됨을 의미한다. 과거 인터넷 사례에서는, 1983년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토콜(TCP/IP)이 처음 표준화되었다. 이 표준은 현재까지 쓰이고 있고, 인터넷은 그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글로벌 AI 리더들이 새로 제안된
MCP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중

2025년 3월부터 G2의 AI 리더(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들이 본격적으로 MCP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리더가 받아들이면 팔로워는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을 프로토콜 표준화 과정으로 생각한다.

MCP, Generative AI보다 복잡한
Agentic AI에 더 큰 효용.
확산 가속화의 촉매제로 이해

MCP는 Generative AI보다 복잡한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Agentic AI에서 MCP 효용성이 훨씬 크다. MCP의 유용성은 Agentic AI 초입 국면에서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변화로 판단한다.

미국 주식
하반기 AI S/W 최선호
종목 선별 기준 Rule of 40 제안

미국 미국 AI 산업의 기회로는, 1) MCP로 AI 모델의 유지/보수/확장이 편리해지고 2) 수익화가 이미 가시화된 AI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목한다. B2B에서는 AI가 이미 고객사들의 유의미한 재무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먼저 AI를 도입한 기업의 경쟁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어 바텀업 측면의 확산 전망도 낙관적이다. 그 안에서 종목의 선별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의 잣대인 Rule of 40 스코어 기준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중국 중국에서 AI 에이전트의 빠른 산업 발전은 기존 온라인 트래픽 확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AI 에이전트의 성능이 향상 될수록 소수의 ‘슈퍼 에이전트’에 트래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중국 빅테크들간 선점 효과를 위한 경쟁을 확대해 나아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1) 방대한 사용자와 실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AI 확산을 주도할 수 있거나 또는 2) 모델 정확도와 반응 속도 등 기술 역량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텐센트는 고객 수 기반에서, 알리바바는 기술력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빅테크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텐센트·알리바바 vs. 바이두

에이전트 시대 중국 빅테크에
옥석가리기 필요한 시점

만약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기술과 사용감이 무르익으면서 B2C 시장에서 빅테크들의 슈퍼 Agent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 시점을 빠르면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기도 하다.

판단기준: 유저에 기반하거나
독보적 기술력 보여주거나

그렇다면 어떤 빅테크가 유리할까? 필자는 중국에서 슈퍼 Agent를 확보할 수 기업의 조건은 1) 대량의 유저수를 보유하고 시장 트렌드를 잘 반영해 사용이 편리하거나, 2) 가장 좋은 성능의 AI를 제공할 수 있는 빅테크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텐센트와 알리바바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선호
vs. 바이두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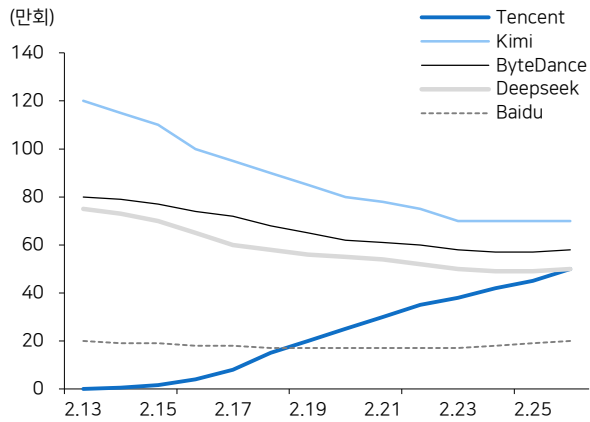
텐센트는 중국에서 14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Wechat이라는 중국판 ‘카카오톡’을 갖고 있다. 회사의 LLM 모델 성능이 기타 빅테크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이미 딥시크 모델을 연결해 그 부족점을 보완했고, 최근에는 Wechat에 AI 비서인 위엔바오(元寶) 기능을 추가해 Wechat에서도 문서 요약, 질의 응답,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기준으로 일일 활성 사용자수가 20배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콘텐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여 게임 내 자산 생성, 캐릭터 행동 시뮬레이션, 콘텐츠 자동화를 구현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 5개 분기 회사의 매출 증가율도 꾸준히 개선되었는데 게임 매출 호조 기여도가 컸다. 이에 반해 전통 검색 플랫폼으로 불리는 바이두의 온라인 광고 매출 증가율은 4개 분기 계속 하락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9).

다른 빅테크는 알리바바다. 알리바바의 Qwen3 모델은 현재 딥시크 R1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 다중 모달을 처리 가능하고 고속 추론과 낮은 지연 시간은 물론, 경량화 및 안정성으로 기업용 배포에도 최적화 되어 있다. 또한 생태계 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덩딩(DingTalk) 등 B2B와 B2C를 아우르는 앱을 보유하고 있어 AI 사업 확대에도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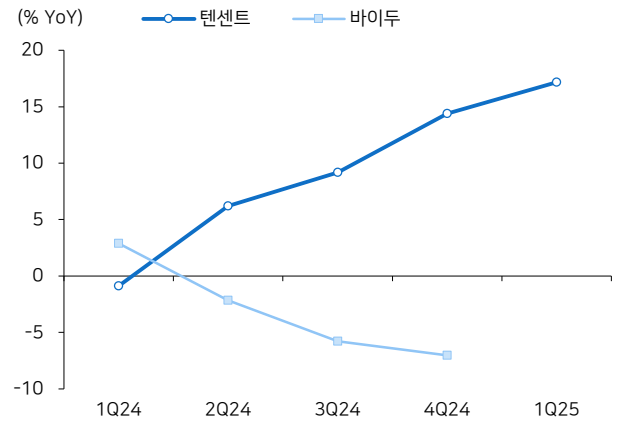
또한 알리바바는 올해 3월 중국 AI Agent계 딥시크로 불리는 마누스(Manus)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마누스는 알리바바 Qwen3 LLM 모델에 기반해 모든 Manus의 Agent 기능을 중국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파트너와의 협력은 알리바바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유리하며, 금융, 헬스케어 등 B2B 분야에서의 AI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너지를 된다. 아직 예단하기 이르나 상장한 주요 빅테크 중에서 가장 강한 AI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8 텐센트의 AI 비서 위엔바오 출시 후 일간 활성자수



자료: Insigh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텐센트와 바이두의 AI 기반 매출액 증가율 비교



주: 텐센트는 게임과 SNS가 포함된 VAS 사업 매출, 바이두는 온라인 광고 매출
 자료: 각 사,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마누스(Manus) 중국어 버전과 Qwen 전략적 제휴관계 체결 ('25년 3월 11일)

Manus 中文版与通义千问达成战略合作

Manus 官方团队 | 2025年3月11日



자료: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